

추천도서의 의미와 무의미

길고도 짧은 連載여행을 끝내면서

李重漢

출판평론가 ·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 시리즈를 시작한 지 어언 2년이 넘었다. 한달에 한번이라는 원칙을 가졌지만 너무 길고 또 짧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실은 더 소개하거나 점검해 볼 목록들이 있긴 하지만 그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더 말할 수 있는 목록들은 그 나름대로 다른 난점들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내 개인적으로는 「새터디 리뷰」誌가 5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선정해 본 북리뷰목록이나 뉴욕타임즈誌 선정 1960년대 주요 도서목록들에 더 큰 애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다 개성적인 목록일수록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에는 전혀 전달력이 없다는 난점을 갖게 된다. 책 그 자체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이상 책 제목만으로 말하기란 얼마나 허공의 바람이나 메아리 같은가.

이 때문에 그간 언급해 온 추천목록들도 그저 떠오르는 대로 골랐던 것은 아니다. 적어도 상당부분 우리의 市場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목록들만을 대상으로 했었다. 그럼에도 얼마나 실제로 의사소통의 계기가 마련되었는가는 알 수 없다.

내 스스로의 위안은 이 시리즈를 계속하는 동안 받았던 적지 않은 전화였다. 매항목이 나갈 때마다 각기 다른 영역의 전화를 받았던 것도 인상적이다. 책의 목록만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는 일은 그 반응이 있는만큼은 우리의 지적 관심의 폭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은 책의 가치를 버리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희망을 되돌려준다.

그러나 또한편 전화는 나에게 의외의 곤혹감을 주기가 일쑤였다. 전화를 한 상당한 분들이 말했던 것은 “그 책의 목록들과 견해는 잘 보았다.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책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였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그 책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말할 수는 있다. 나에게도 있고, 또 누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중 어느 한책을 보았으면 한다는 주문에는 힘이 들었다. 책 찾아드리기 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은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책 고르기의 두가지 초점

하지만 이 반응의 의미는 크다. 곧 우리사회의 오늘날 책의 위치에 관한 중요한 결함을 보여준다. 책이 제목으로 말해질 수는 있어도 너무나 많은 책은 찾아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옳고 쓸만한 문화인가. 굳이 다시 그 대답을 적어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근자에 와서 우리는 도서목록에 관한 관심을 얼마쯤 높이고 있다. 특히 「좋은책 목록」, 「청소년도서목록」이란 표제를 가지고 있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 작업도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리즈에서 가장 힘들이며 반복해 강조했던 것은 이 「좋은책 고르기」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개혁인가. 초점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이 시대의 새로운 목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는 대단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이다. 따라서 어쩌면 책읽기의 형식 그 자체가 변할 수도 있는 분수령에서 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얼마나 많은가. 책은 한편으로 팔리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는다. 그 어느 부분만 복사해서 보고 있고 또 앞선 사람들은 이 부분마저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스크린 위에서 보고 있다.

결국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재래식 좋은책이란 아마도 최고품위의 교양서적들만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할 경우 이 시대의 책이란 또다른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미래지향의 책들만이 아닌 게 된다. 보다 질 좋은, 그리고 참으로 깊이 인간의 삶을 생각하고 전망하며 이로부터 자신의 개성적 삶을 재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된 책들이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둘째는 과연 추천할 만한 책이 있는가만이 아니라, 과연 추천할 만한 판본이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나 자신만 해도 근자에 「老子」의 유려하며 정밀한 번역본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나의 정신적 행복함이 커질 것인가를 생각할 때가 있다. 레마르크의 한 구절도 떠오른다. 그의 소설 「개선문」에서 레마르크는 그의 주인공이 모든 것을 잃은 파리의 전쟁터에서 그러나 한편의 책을 다시 찾아 읽는 장면을 구성한다. 그리고 말한다. 책이야말로 위안이다.

나는 인간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책이야말로 잘 씌어진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저 내용이 깊은 것이어서만은 이 잘 씌어진 것의 평가를 얻기는 어렵다. 문장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번역본들의 문장은 또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야기가 좀 더 벌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 문장은 마치 번역문장 같다는

이 시리즈에서 내가 가장 힘들이며

반복해 강조했던 것은

두가지 초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좋은책 고르기」의 근본적 개혁이었다.

첫째는 빠르게 변하는 새 시대의

새로운 목록 구성이다.

그리고 둘째는 추천할 만한 책의

여부만이 아니라, 과연 추천할 만한

판본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말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단지 우리의 문장 맛을 기억하기 위해 李熙昇의 수필과 皮千得의 수필을 찾아볼 때가 있다. 얼마쯤 日本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馬海松과 金素雪도 때로는 기억한다.

이점에서 판본의 문제는 심각하다. 널리 읽히고 있는 名著일수록 그 질적 측면은 너무나 빈약하다. 오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정리해 본 적이 없고 어떤 명작소설들은 몇사람이 나누어 번역했던 판본인지조차도 잊어버린채 여러 전집 속에서 제목만 더욱 빛나고 있다. 누가 이들을 전부 다시 읽어, 이제는 판본기준으로 명작을 가려 내놓을 수 있겠는가.

추천할만한 '책'과 '판본'

지금 간행되고 있는 책들은 또 이 번역문장으로 부터 읽기를 시작한 세대들의 번역이다. 그리고 이 젊은세대들은 소설번역보다는 사회과학서 번역을 더 즐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최근 마치 논문투 같은 번역소설도 한편 찾아냈다. 나에게 이 책의 이름을 말하라고 주문하지는 않는 것이 아마도 나를 도와주는 것일터이다.

이 대세가 아동도서들에게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의 문제가 또 따로 있다. 읽힐만한 책은 텍스트 그 자체로 읽혀야 한다든가, 아동도서가말로 세계명작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이 시리즈 속에서 이미 개진했다. 그리고 나는 「간행물윤리」誌에 최근 청소년도서에 관한 광범위한 관점을 半年에 걸쳐 써 두었다. 그리고도 여기에 할 말은 또 남아 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동들을 위한 추천도서목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좀더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누가 웃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지금 그 터무니없이 가볍고 피상적인 유행어들로 조립된 기이한 어린이 문장의 책들을 읽고 있다. 코미디 쇼프로의 소설화도 책으로 읽고 있고 폭력비디오 영상물의 소설화도 책으로 읽고 있다.

이 관점에서 세계의 추천도서목록 이야기는 또한번 허망한 것이 될 수 있다. 목록은 알았으니, 바로 읽으려면은 원전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만이 유일하며 무리한 조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나의 이 얼마되지 않은 작업은 도서목록의 소개이기보다 도서목록을 통해 어떻게 책고르기를 시작할 것인가의 발상법을 제시하는데 머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기는 이 의사만이라도 소통이 된다면 그나마도 대견한 결과이다.

우리자신의 추천도서목록 만들기

좋은 책이란 기실 객관적 동의를 전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준의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좋은 책일 수 있는 게 좋은 책이다. 이 점은 세계 어느나라의 역사적으로 좋은 책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보다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책을 눈여겨 보아 둔다는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서도 좋은책은 실제로 꼼꼼히 읽어본 사람들의 평가로서만 따져야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명작이나 추천도서들은 읽기보다는 들은 기억으로 그 명성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추천하는 사람도 그렇고 추천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다. 이것이 바로 추천도서들의 피할 수 없는 신화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추천도서의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모두들 이 추천도서의 목록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새로 한번 우리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 보는 일을 하는 것이 더 기념비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또 이 일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여러 단계의 접근들이 필요하다. 우선 읽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읽기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바로

게 읽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읽을 사람 뽑아 모으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바른 비평이 필요하다. 자신의 사상과 견해의 비평을 뛰어넘어 누군가 읽을 사람의 평균적 시야에서 어떤 의미가 어떤 삶에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상당한 수준에서 정밀하며 친절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비평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 또한 사람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선정된 책의 바로 만들기가 새롭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세계문학전집 목록을 전면적으로 재조립해서 번역부터 새로 보다 완벽하게 시작해보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는게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일을 하자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이 일을 하려면 아마도 10년쯤은 걸릴 터이니 누가 10년이나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인가. 그러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의 태도는 기억이 돼야 마땅하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출판문화에 확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좋은 책 읽히기라는 사회적 문화적 명제란 실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한 것이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독서의 성숙도'

남은 방법은 스스로 읽기를 선택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주어야 한다는 것일뿐이다. 오늘날처럼 도대체 '책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외마디식 경고의 교육구조에서는 양서만이 아니라 악서까지도 읽기는 힘들다. 그러니 악서도 악서를 읽을 능력이 있으면 양서가 될 수도 있다는 反語法마저 우리에게서는 성립되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이든 읽고 있는 젊은이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그 읽기를 계속시키는 일은 우리의 새 읽기능력을 키우는데 거의 유일한 길일 것이다. 이들이 늘고 커지면 이들에 의해 새 목록키우기의 힘이 모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가장 비능률적인 희망마저 오늘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유네스코의 독서연구과제로 그레이와 로저스(William S Gray & Bernice Rogers)가 제시했던 「독서의 성숙도」라는 개념이 있다. 여기에 이를 좀 자세히 옮김으로써 이 글의 마지막을 정리해 보려 한다.

“성숙한 독서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다.

○ 독서에 대한 진정한 열망-기쁨을 얻고 안목을 넓히고 창조적 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서적과, 자신과 남 그리고 사회·도덕·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줄 중요한 서적, 그리고 특정분야나 핵심 및 근본과 관련 있는 서적들을 집중적으로 읽고자 하는 성향, 말의 의미를 새기고 내용의 명확한 파악과 이해를 하며 의도된 분위기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

○ 내용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편견과 선전을 가려내며 그 확실성과 가치에 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저자의 소개 견해 및 결론의 정확성, 건전성에 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냉철한 지성적 이해는 물론 좋다 나쁘다 하는 감정의 이해도 포함된다).

○ 새로 얻은 지식을 이전의 경험과 연관지워 볼 수 있는 성향, 그럼으로써 새롭고 더욱 명쾌한 이해력과 넓은 관심, 합리적 태도의 개선된 언행패턴, 그리고 더욱 안정적인 성격의 습득.

○ 독서의 속도를 때에 따라 또는 정확한 해석을 위한 요구에 따라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은 추천도서목록이란 굳이 지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자신이 읽는 책이 곧 만인에게 추천도서목록이 될 뿐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남의 눈으로 읽은 많은 추천도서목록들을 떠나서 우리 자신의 눈으로 읽은 추천도서목록을 만들어야만 할때이다.

나는 자주 의외의 영역에서 있는 책속으로 여행하기를 즐긴다. 그러나 어떤 의외의 영역에서도 만일 그 책이 좋은 책이었다면 언제나 나를 내가 서있는 이 사회의 현실로 되돌려준다. 나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책은 어디엔가 하자가 있다. 이것이 나의 도서추천 기준이다. 때문에 나는 모든 책에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한다. 우선 들어가 보는 일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어느 책이든 정말 표지만 보거나 만지지 마시기를. 어느책이든 정말 우선 책의 중간쯤을 펼쳐서 단 한 문장이라도 읽으시기를.

저작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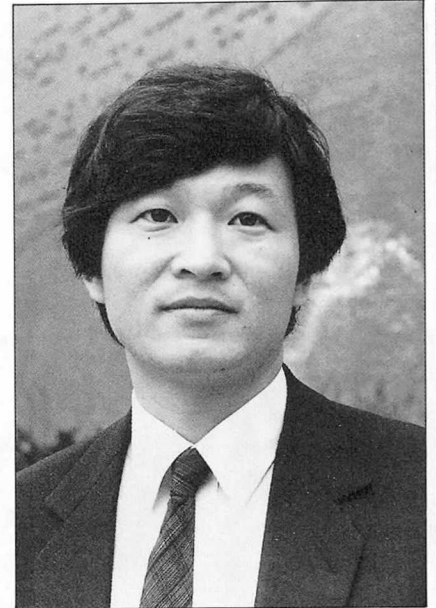
북한문화의 내면구조 해석

「북한 문화 정보」

박상천

한양대 교수·국문학

얼마간 자료집의 성격도 가질 이 책은 북한문화의 표면적 구조를 기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조를 가능케 한 내면구조를 해석하고자 한다.



북한을 바로 알자는 생각이나 운동은 민족통일을 갈망하는 염원의 한가지 표현이다. 그리고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이 그러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일이야말로 올바른 통일을 이룩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가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화적 동질성이 민족적 동질성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올해초까지 1년 정도에 걸쳐 「북한의 현대문학」이라는 제명으로 해방이후 80년대까지의 북한문학을 개관하는 작업을 해보았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새삼스레 놀란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우리에게 북한을 알기 위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또는 북한을 소개하는 책자가 너무 피상적이거나 편향적이라는 점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적대감정을 품고 살아왔었고 또한 그것은 그동안의 빛나간 통일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문화를 이렇게까지 다르게 바꾸어 놓을 수 있구나 하는 점이었다.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북한문학의 변화는 바로 이데올로기가 문화를 지배하여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리하여 이제 남북한 문학은 같은 언어로 씌어졌다는 점 외에는 거의 동질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까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그동안 북한을 알기 위한 통로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위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확실히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끄러움을 북한의 문학을 좀더 알고자 하고 또한 모르는 이들에게 좀더 자세히 알려야 한다는 욕심으로 바꾸었다. 물론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이 안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먼저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알지 못한 채 민족적 동질성을 운운하는 것을 한낱 허위의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화 정보」라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이 작업은 단순히 북한의 문화적 실상을 표면적으로만 기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얼마간 자료집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문화의 표면적 구조는 이 작업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러한 구조를 가능케 한 내면구조를 해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 작업은 상당히 방대한 작업만큼 공동의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현대문학」 작업시 함께 작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던 한양대 尹在根 교수님, 북한의 현대문학의 연구실상을 소개하는 작업을 한 李尙鎬 선생님 그리고 자료정리를 도와주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알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 그 자료의 부족을 최대한 극복하여 많은 이들에게 북한의 문화적 실상을 제대로 소개하고 나아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그 생각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